새로 나온 책

▲신라불교 사상사연구(김영미 지음)=신라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아미타신앙과 여래장사상을 통해 신라인들이 불교적 세계관을 어떻게 받아들여 생활화했는지를 삼국유사와 금석문에 나타난 신앙사례를 분석해 밝혔다. 저자의 박사논문인 이 책에서는 또 원효의 불성론과 아미타신앙의 관계를 분석, 신라불교가 선종사상과 괴리되지 않았음을 살폈다. 민족사, 1만2천원.

▲이와같이 나는 들었다(암도 지음)=전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20년간 포교에 헌신해온 암도스님의 생활불교 지침서. 어느때 어떤 경전과 다라니를 독송할

것인지, 석가모니와 대승보살들의 지혜의 법문, 인연과 인연법문 등 모두 4부로 구성했다. 우리출판사, 6천원.

▲환학의 울음소리(불교전기문화연구소 엮음)=조선의 고불로 추앙받아온 학명선사의 일대기. 선사의 생애와 사상, 어록, 독특한 선풍을 이룬 학명선을 조명하고 있다. 아울러 유고집인 백농집과 일본 임제종 관장 종연선사와 거량한 선문답과 선시, 백양산가 등 16수를 발굴, 수록했다. 불교영상회보사, 6천원.

▲새 불교 원초불교(아잔 차 외 지음)='마음 길들이기' 등 그동안 소책자로 발행돼온 10편의 글을 수행편(1)로 묶은 남방불교의 수행지침서. 남방불교에서 불교수행 지침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염신경'도 실었다. 김용호 외 옮김, 고요한소리, 6천원.

▲수행합시다(현음 지음)=한국불교의 전통적인 대승선에 위빠사나 수행법을 접목시킨 선수행 지침서. 송광사수련원 지도법사를 지냈던 현음스님의 유고집으로 불일회보등에 연재했던 '5일 동안의 수행' '실제적인 수행을 위한 지침' 등의 글을 묶었다.

"불교도 재미있게 공부해요"

교리 시리즈 · 퀴즈대장경 눈길 · · ·만화도 한몫

'불교란 무엇인가.' 초심자는 물론 불교를 꽤나 공부한 사람에게도 이같은 의문의 충동이 인다. 불교가 어렵다라는 반증이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기확인을 요구하는 불교의 속성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 잇따라 출간되는 〈재미있는 · · · 〉 시리즈가 이같은 우문에 대한 현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불교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 주목된다.

'재미있는'을 책제목의 머리에 이고 나온 책서는 〈재미있는 불교공부〉 〈재미있는인과이야기〉 〈재미있는 선이야기100〉 등이다. 이밖에 문답으로 불교를 배우는 〈퀴즈대장경〉(불지사)과 〈만화화엄경〉(불교만화사)을 비롯한 만화경전시리즈, 〈만화로 보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우리출판사) 등을 불교공부를 재미있게 이끄는 책서로 꼽을 수 있다.

이같은 제목붙이기와 새로운 형태의 불교입문서는 불교를 알고 싶어도 어렵다는 선입관을 갖고 주저하는 독자들을 부르는 손짓으로 풀이된다. 또 경전류 법어집 들과는 달리 가벼운 마음으로 불교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한편 '재미있는' 시리즈가 불교의 대중화와 교리의 체계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나 너무 간략한 설명으로 자칫 포괄적인 불교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불교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서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에 출간돼 두 달만에 3쇄를 기록하며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재미있는 불교공부〉(세민 지음)는 불교시대사의 '재미있는' 시리즈를 대중화시킨 입문서이다. 이 책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 '경전의 세계' '중요한 교리' '업보와 윤회' '불자의 수행' '불교와 문화' 등 6개장으로 나누고, 각 장을 17~23개 항목으로 분류해 1~2쪽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각 항목의 원어인 산스크리트어 풀이를 통해 원뜻을 밝히고, 경전의 용례를 들어 뜻풀이를 했다. 여기에다 신앙적 의미, 현재의 사용관례를 밝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불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무상'의 경우, 자칫 생명의 덧없음 즉 허무의 뜻으로 즐겨 쓰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해가며, 변화하는 현상을 초월한 고정적인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현실파악이 불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나아가 "무상하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하여 변화 · 향상할 가능성도 보이는 것"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재미있는 선이야기 100〉(지우 편저, 불교시대사)은 〈벽암록〉 〈무문관〉 등 선어록에서 선문답을 발췌해 선을 통한 불교입문의 길을 열어보인다.

선은 상식이나 논리를 넘어선 것이므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우선 당황스럽다. 그러나 이 책은 논리와 합리성에 깊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케 해준다.

'차나 한잔 마시게(喫茶去)'는 조주스님의 유명한 화두다.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차나 한잔 마시게'라고 인사했다. 이 말에 존재의 근원에 대한 투철하고 깊은 선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재미있게 풀이하고 있다.

〈퀴즈대장경〉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그램 '퀴즈대장경' 문제를 책으로 엮은 것. 부처님의 생애와 경전, 한국불교의 큰스님, 불교문화 등 8개장에 5백여 문제와 정답, 간단한 해설을 곁들인 일종의 불교상식 · 불교입문서이다.

〈재미있는 불교이야기〉(대운 엮음, 열린불교)는 사성제, 석가모니 부처님, 불법승 삼보, 팔정도 · 불성 · 보현행 등 불교의 기본교리와 실천지침을 경전의 가르침과 설화, 현실에서 차용한 비유로 풀이했다. 초심자 또는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의 안내역을 하내고 있다. 책 뒷부분에는 250여 항목에 대한 색인표를 달아 독자들의 편의를 도우는 성의있는 편집 태도를 보였다.

〈재미있는 인과이야기〉(여래)는 경전과 사찰설화 가운데 인과와 관계된 50편을 가려뽑아 '인연의 장' '윤회의 장' '지혜의 장'으로 나눠 엮었다. 불교의 기본교리인 연기법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성운 기자〉

명사추천 불서100선

조주록

늦깎이 공부길 안내에 발심

조 달 공 〈서울불일회장〉

벌써 20년전의 일이다. 내가 구산 큰스님을 뵈었을 때, 곧바로 선공부를 말씀해 주셨다. 그때부터 서울 법련사에서 철야정진이란 명분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참선공부를 시작했다. 몇몇 거사들이 주축이 되어 줏나기 수행인 답게 꼬박꼬박 빠짐없이 이어나갔다.

구산스님의 지시대로 좌선 이외는 불경같은 것은 볼 생각도 안했다. 게다가 주안 용화사 송담스님 법문을 들어도 화두 참구하는 법 이외는 불서 한권 소개하는 일이 없었다. 고작 일년에 한번씩 법보시로 나눠주는 〈선가귀감〉 정도였다. 따라서 내 서가에는 〈선관책진〉 〈신심명〉 〈증도가〉 정도의 몇 권이 전부였다.

그후 어떤 인연으로 건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영무교수의 불경 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교수님의 강의에 나는 하도 심취하게 되니 난해하던 불경도 제법 풀려가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지금의 나의 서재는 대학에서 전공하던 불란서문학은 좌천을 당하게 되고 그 대신 불서들이 군림하게 되었다. 그중에는 불어불경, 영어불경도 몇 권 끼어 있다.

좌선과 불경공부를 아울러 하자니 그 만큼 바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선교를 양립시킨다는 그런 뜻을 굳히게 된 셈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불교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아직은 한문실력이 딸려서 비록 번역이나 대역본을 읽을 수밖에 없지만 나도 원서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머지않아 오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청소년기였지만, 발심은 비교적 늦은 50대가 되어서 였다. 나는 처음 조주록(趙州錄)을 대하고, 한가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다. 60세에 입산한 조주스님에 비하여 나도 때가 늦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 더욱이 인도의 협존자(脇尊子) 같은 분은 80세 발심하여 도를 이루었다고 하지 않는가.

공자님도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 하셨듯이, 조주스님도 '일곱살 어린이에게도 배우겠노라' 하였다. '활도로 학도로(活到老 學到老)'란 말이 기억난다.

스님은 생애를 통해 청빈낙도가 몸에 밴, 그런 선사의 한 분임을 실감할 수 있다. 부러진 선상다리를 부지깽이로 동여매어 쓴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거니와, 조주록 게송 가운데 십이시가(十二時歌)는 스님이 120세까지 얼마나 가난한 수행으로 정진해갔는지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닭이 우는 축시(丑時)
· · · · · ·
군자(君子)도 관삼(綰衫)도 하나 없고,
가사(袈裟)는 형체만 겨우 남았네,
속옷에는 허리가 없고, 바지에는 주둥이가 없네.
머리에는 푸른재가 서너말,
도 닦아 중생구제 하렸더니
이 꼴로 변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조주스님의 끽다거(喫茶去)는 모르는 이가 없다. 하지만 이 해석은 구구하다. '차나 한잔 들고 가게' '차간에 가서 차나 한잔 마시게(그리고 정신차리게)' 등등.

도를 구하려 불원천리 찾아오는 납자들에게 선사가 건네는 표현이다. 일찍이 차와 선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왔다. 각자는 공부의 정도만큼 그 풀이의 심도도 깊고 얕은 것이다.

보조 · 태고어록 색인집 준비

내년 2월출간 · · ·2백부 한정판

보조 및 태고어록 일자색인과 항목 색인집이 95년 2월 출간될 예정이다. 보조어록 일자 · 항목 색인은 정혜결사문과 수심결 진실직설을, 태고어록 일자 · 항목색인은 원돈성불론 간화결의론을 텍스트로 삼았다.

이 작업에는 중앙승가대 전산원장 김응철교수와 이태승씨(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본스님(중앙승가대교수 · 불교학)과 종범스님(중앙승가대 도서관장)이 자문에 응하고 있다.

일자 · 항목 색인은 특정한 글자 및 항목이 저술 중 어느 곳에 어떤 개념으로 쓰였는지, 특정한 항목에 대해 저술자가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어록 글자 사전이다.

일자색인 및 항목색인집 발간은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불교학연구의 필수적인 기초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생태주의운동 자료집 발간

불교환경교육원

사단법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이사장 법륜)은 지난해 실시한 '생태주의 운동의 사상 모색강좌(1)'를 자료집으로 발간했다. 이 강좌는 불교를 비롯한 동양철학 내부에서 환경과 생명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수록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동양사상에서의 환경의식/유승국(전 정신문화연구원장) △노장철학의 세계/송항용(성균관대교수 · 유학) △노장철학의 자연관/이강수(연세대교수 · 철학) △불교사상과 환경문제/전재성(한국불교대교수) △불교사상에서의 생명문제와 세계관/법륜 △힌두이즘의 우주관과 자연관/김용정(동국대교수 · 철학) △동학에 나타난 자연관과 세계관/임운길(천도교 종무원장) △유학에서의 정치와 자연관/최영준(성균관대교수 · 유학) △주역에서의 자연관/곽신환(숭실대교수 · 철학) △한국의 전통속에 나타난 환경윤리/최근덕(성균관장).

고 선원빈국장 추모문집 다음달 불지사에서 펴내

선원빈 전법보신문 편집국장 추모문집이 다음달 불지사에서 발간된다.

20여년을 불교언론 발전에 몸바쳐온 고인의 넋을 기리고 후배들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문집 발간은 유족과 불교언론 선후배, 지인들이 함께 하고 있다.

문집에는 고인이 법보신문에 연재했던 '인사동칼럼'을 비롯해 불교의 오늘과 내일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망한 '불가의 신풍속도', 학창시절(동국대 국문과) 동대신문에 발표했거나 미발표작 시와 단편소설, 이와 함께 시인 고은, 목정배교수(동국대), 박경훈 전 역경부장 등 지인 20여명의 추모글이 실린다.

21세기 불교아카데미 곧 단행본으로 출간

한국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이남곡) 올해 5월부터 개최한 '21세기 불교아카데미'와 '21세기모색 아카데미' 강좌 내용을 단행본으로 꾸며 이달 중순 펴낼 예정이다. 강좌에는 박광서교수(서강대) 현능스님(사천왕사 주지) 배영순교수(영남대) 등이 '불교사상의 세계화' '지방화 시대, 지역사찰의 위상과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 · 편자	출 판 사	분류
1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수상
2	선문선답	오현	장승	선평상
3	위빠사나	김열권	불광	선평상
4	부처님 땅	이정범 외	불지사	아동
5	만화 반야심경	임기준	불교만화사	아동
6	영원한 나를 찾아서	혜원	글수레	법어
7	백일법문	성철	장경각	법어
8	마음의 향기	성우	토방	문학
9	사랑하는 날	현진	해인사출판부	수상
10	진흙소리의 울음	경허	홍법원	법어

구입문의:(02)737-0695

신간

신비의 영부적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도
바뀔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신국판/800쪽/값 35,000원

관음 역서 시리즈
1 내가 푸는 내 운명 감정 소프트 상 중 각권 값 9,000원
2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값 12,000원
3 관음 소프트 만세력 값 8,000원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1995학년도(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야간) ☎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 불교학·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1월24일(목) 14 : 00
석사과정 : 영어·전공·면접
연구과정 : 서류전형·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관리자과정(야간) ■

1. 지원자격 : 조계종의 대덕법계품수승려·각 종단의 간부
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신심이 돈독한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7일(월)~11월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1월25일(금)13 : 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교육대학원(야간) ☎ 260-3109·10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지리·역사·수학·윤리·철학·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전자계산·종교교육·중국어교육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14일(월)~11월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12월3일(토) 14 : 00, 서류전형·면접 및 전공구술
4. 특 전 : 교육기관의 교사,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시 가산점 부여

문화예술대학원(신설·야간) ☎ 260-3605·7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 : 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 : 연극·영화영상
다. 불교예술문학학과 : 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제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11월28일(월)~12월9일(금)
3. 전형일시 : 1994년12월16일(금) 15:00
4. 전형방법 : 구술시험, 면접
5.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문화예술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 풍전작가·연예인·불교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 연구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동국대학교

단전호흡

한민족전통수련법인 단전 호흡은 마음, 몸,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수련으로써 누구나 꾸준히 수행하면 삼매의 경지에 이르는 수련 도법입니다.

단전 호흡은 조용하고 고르게 꾸준히 수련하면 정신집중이 잘되고 안정되며 단전에 힘이 모이므로 두통, 불면증, 소화불량, 변비, 기관지, 허리병, 어깨결림, 갱년기장애, 숨가쁨, 손발저림등 각종 질환에 뚜렷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련내용 : 단전호흡,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약도

■문의처:(02)735-6795, 6796

韓國神仙道協會
會長 李海昌合掌